

대구주보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대림 제4주일 2018. 12. 23.(다해) 제2138호

| 용서와 화해의 해, 냉담 교우 회두와 선교에 힘쓰시다!

발행인 | 조환길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편집 | 문화홍보국 인쇄 | 대건인쇄출판사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전화 | (053)250-3048~9
홈페이지 | www.daegujubo.or.kr 이메일 | jubo@dgca.or.kr 등록 | 2017. 11. 13 대구 다04660



정미연 소화데레사 작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루카 1.43)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1,45)

오늘 복음을 보면 엘리사벳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마리아를 향해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느님께서 꼭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약했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면, 받을 벌이 두려웠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출신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1623~1662)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살아서 하느님을 믿을 경우, 죽어서 하느님이 있다면 복이 터질 것이지만 하느님이 없더라도 손해 볼 건 없다. 그런데 살아서 하느님을 믿지 않을 경우, 죽어서 하느님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하느님이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다.” 이 같은 파스칼의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의 힘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한 사람의 발견이, 한 사람의 발명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컨대 마더 테레사의 참 사랑 실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발견, 에디슨의 발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모님의 잉태 역시 이런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구세주 탄생에 대한 성모님의 깊은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은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성모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느님께 대한 깊은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깊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한다면, 성탄 때에는 더욱 충만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1,45) **말씀**



이성인 바오로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사이비예수교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신천지 16

조현권 스테파노 신부 | 교구 사목국장

신천지와 요한 묵시록

앞서 살펴본 대로 신천지는 성경 중에서 요한 묵시록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요한 묵시록이 바로 하느님께서 신약에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었다고 하면서,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출현하여 그들 자신에게 해당하는 일인 예언을 실상으로 다 이루는 일이 요한 묵시록 21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이른 새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인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요한 묵시록의 예언과 실상을 잘 알고 깨닫고 있는 자신들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으며, 다른 교회들은 요한 묵시록을 제대로 모르니 엉터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구약은 이루었으나, 새 언약인 신약 곧 계시록은 장래에 이를 것이며, 이를 이룰 때 믿으라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이다. 성경을 통해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본 바로는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느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같이 어졌다. 그러나 남은 것은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 곧 계시록이다. …… 이 새 언약이 곧 계시록의 사건이며, 이를 가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주를(재앙들을) 받는다고 하셨다.(묵시 22,18-19) 이 새 언약 계시록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가감한 자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거짓 말이요, 이런 자는 아담과 솔로몬같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배신자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濫用)한 것에 불과한 자이다.”(신천지 사명자 교육 책자 -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해설 VIII, 66-67쪽)

약속의 나라 신천지?

이렇게 신천지는 자신의 교회를 요한 묵시록을 통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천국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성경말씀을 자신들의 필요대로 군데군데 짜깁기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천지는 하나님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이며, 영생의 양식 ‘만나’와 심판하는 ‘흰돌’과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과 ‘생명나무’가 있고(묵시 2,3장), 수정같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으로서 사망과 고통이 없는 곳이다.(묵시 21,22장) / 신천지는 구약 시대 모세 율법 때부터 약속으로 이루어 온 곳이다.(탈출 19,5-6, 히브 8,5-10 참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었고(갈라 3,24),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의 씨를 뿌리셨고(예레 31,27: 마태 13,24), 오늘날 그 씨의 열매를 추수하여 인치는 양육을 하셨으며, 이 양육된 자들로 약속하신 열두 지파를 창설한 것이 오늘날의 신천지이다.(묵시 7,14; 21,1) / 이 신천지는 가톨릭 교회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며, 주께서 신약에 약속하시고 오늘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 천국이다. 이 나라는 이전의 선천 곧 2천 년간 하늘 복음의 씨를 뿌린 역사를 종결짓고 난 후 창조된 것이다. 이것이 이를 계시록이었다. / 이 일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봉해져 있는 상태였고(묵시 5장), 예언만 있는 것이었는데, 오늘날 예수께서 인을 떼시어(=봉인을 열어)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신천지인은 자기(계시록 성취의 실제)를 이룬 계시록을 알고 있다.”(신천지 사명자 교육 책자 -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해설 V, 268-269쪽) **필문**



최저임금제와 사회윤리

박용욱 미카엘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최근 사회교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만, 모든 국민이 가톨릭 신자도 아니고, 또 가톨릭 신자라 해서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모든 국민이 따라야할 지침을 강제할만한 특권을 가진 것도 아니지요. 때문에 신자건 아닌건 간에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문제의 윤리적 차원을 살피자면 '사회교리'라는 교회 용어 대신 '사회윤리'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윤리라는 말이 간단치 않습니다. 윤리에는 반드시 책임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사회윤리는 순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힘든 일들에 대해 사회의 책임을 따지는 것인데, 이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이 자칫 '세상 탓'으로 전락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윤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늘 세상 탓만 한다.'는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제가 딱 그런 예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제1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 노동자가 처한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는 당위를 이야기하면, 그 당위 때문에 고통 받는 '현실'이 대담으로 돌아옵니다. "임금노동자만 힘들냐? 고용하는 자영업자도 힘들다.", "임금 올려 줄 형편이 안 되니 고용을 줄여야 하고, 그러면 결국 저소득층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언제 달성될지 모를 이상적인 미래지만,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은 바로 지금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아야할 저소득 노동자의 노력이나 태도를 지적하게 되면 개인윤리가 사회윤리를 질식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더 받고 싶으면 더 노력해서 다른 직장 찾아야지!", 혹은 "내가 이 자리에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만큼 노력도 안 한 사람이 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불공정한 것 아닌가?" 같은 말은 결국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애당초 모든 게 개인의 책임일 뿐이면 공동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길을 가면 될 뿐입니다.

교회가 사회교리를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디서나 4차 혁명 운운하면서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 하고, 세계적으로도 불황의 조짐이 보이는 즈음입니다.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성의 변화가 노동과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때입니다. 이 파고를 오직 개인의 힘으로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공동의 책임은 무엇이며,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그 한 가지 방법이지요.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지만, 그 근본정신과 윤리는 무시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필문**

성탄 아침 기도

하늘의 임금님
 별들 사이에서 내려와
 추위로 얼어붙은 동굴 속에 오셨네.
 추위로 얼어붙은 동굴 속에 오셨네.
 오, 거룩한 아기여,
 나 여기 떨어져 당신 뵈옵나니
 오 복되신 하느님,
 날 사랑하심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는지.
 날 사랑하심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는지.

두를 옷도 쪼일 불도 없는 나의 주님
 세상의 창조주이신 당신
 두를 옷도 쪼일 불도 없는 나의 주님
 사랑스런 예수, 갓난아기여,
 이 가난만큼 당신 나를 더 사랑하심은
 사랑이 당신을 더 가난하게 한 때문에
 사랑이 당신을 더 가난하게 한 때문에.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Alphonsus Mary de Liguori 1696~1787)

주교, 설립자, 교회학자, 고해사제들과 윤리신학자들의 수호성인



지혜의 숲

비어 있음

이따금 소란스런 방문객들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수도원의 고요가 흩어지곤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스승은 아무렇지도 않았으니,

그는 마치 고요 속에 있을 때처럼 소음 속에서도 만족한 듯 했습니다.

향의하는 제자들에게 스승은 말했습니다.

“고요란 소리의 없음이 아니라 자기의 없음이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미카 5,1-4가 제 2 독서 히브 10,5-10 복 음 루카 1,39-45.

화 답 송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복 음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환 호 송 바랍니다. ◎ 알렐루야.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교구장 동정

12.18(화) _ 동화사 스님 성탄맞이 방문
12.20(목) _ 대구가톨릭대학교 제2공학관 준공식
12.21(금) _ 요셉의 집 봉사, 교구 평협 송년회



총대리 동정

12.16(일) _ 예비신학생 방학 미사
12.18(화) _ 동화사 스님 성탄맞이 방문
12.21(금) _ 요셉의 집 봉사, 교구 평협 송년회

「빛」 잡지 표지 '양병주 분도의 묵상사진'

2019년 탁상용 신앙 북캘린더 판매

가격 : 8,000원 문의 :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6~8

판매처 : 교구 문화홍보국, 성바로 서원, 성바로팔 서원(동성로), 성바로팔 서원(범어), 바티카노
동천성당 성물방, 삼덕성당 임마꼴라따 성물방

※ 택배비는 별도이나 50권 이상 주문하실 경우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TBC 대구방송 성탄특집 성모당 봉헌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루르드의 위로' 제작 방영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기념해 TBC 대구방송에서 성모당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성탄특집 프로그램으로 편성, 방송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구를 보살펴 주신 성모님에 대한 사랑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 방송시간 : 본방 12월 25일(화) 오후 4시 30분, 재방 12월 30일(일) 밤 11시 10분

서명운동은 끝났지만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2.29(토) 14:00
12.30(일) 10:00, 14:00
장소: 부산 부곡동 본원
문의: (010)3015-1773

비움과 채움을 위한 젊은이 송년 피정

일시: 12.31(월)~1.1(화)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앓숨 분원
대상: 만 35세 미만 미혼 남녀
신청: (010)9286-2247

다락방 성소 모임

일시: 1.6(일) 11:00 미사~18:00
장소: 툇핑포교베네딕도 대구수녀원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8519-3431

2019 꽃동네 성소자 동계 피정

일시: 1.11(금) 17:00~13(일)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연수원
대상: 고등부~심신 건강한 미혼 남녀
참가비: 3만원 / 신청: (043)879-0283

매주고리에 성모 신심 피정

일시: 1.17(목) 13:00~18:00
장소: 교구청 대강당
준비물: 미사봉헌
주최: 성모솔숲마을

교육 | 모집 | 기타

가톨릭 요셉발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일시: 매주 토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교대역 3번 출구)

문의: 476-7774 / www.footfather.com

생활성가밴드 DEUS 멤버 모집

파트: 드럼, 남자보컬, 일렉기타
연습실: 수성구청역 인근
문의: (010)2989-5864

바틀로교육센터 복사단 교육 및 피정

1차: 1.19(토)~20(일)
2차: 1.26(토)~27(일)
주제: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신청: 783-9817 / (010)9868-9817

가톨릭상지대학교 2019년 정시 1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정시 1차: 12.29(토)~2019.1.11(금)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학교 학생 모집

일시: 2019.3~12월(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 무료, 수당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6.4%)
대상: 15~30세 남자 / (02)828-3600

2019 살레시오 초등부 여름신앙학교

일시: 2019.7.20(토)~8.13(화)
장소: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대전)
주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접수: 12.27(목) 10:00부터
문의: (042)584-0654, 홈페이지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주관: 가고시마교구 /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645-9028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성모애덕의집 어르신 모집(무료양로원)

위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로 487
내용: 수녀원 운영, 매일미사, 1인 1실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 어르신
문의: (054)972-6219 / (010)8388-6219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치매, 중풍 어르신 요양원입니다.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2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전화: 670-595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8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준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보청기
김은연(세실리아) 최준우(미카엘)
053)421-8588 (섬유회관 맞은편)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WIDEX **와이덱스 보청기** **달서점**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보조금 131만원, 즉석 A/S, 출장상담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일월, 한솔, 한일매트
게르마늄 온수매트
소금좌욕기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T.053)604-3300
대구 북구 유동당지로 45 전자관 1층 239호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35년 경험과 기도로 치료하는
Since 1985

달성피부과

아토피·민성피부 특화병원
레이저·보톡스·미용시술

손재경(다미아노)·김인주(레지나)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프롤로 재생 주사,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원장 정순우(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 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번더 맞은편)
☎ 053)942-8822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최병선(요한) 신부
1987년 12월 27일

행사 | 모임

바나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가난한 이들과 아픈 이들을 위해
발현하신 성모님
일시: 12.27(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제1대리구청 1층 강당

2018년 송년 감사미사 및 신년교례회

송년감사미사: 12.28(금) 21:00
신년교례회: 1.4(금) 21: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문의: (010)9045-0191

백혈병소아암환아돕기

2018 대구가곡사랑모임 송년음악회
일시: 12.29(토) 15:00
장소: 남대영기념관 빠리니홀(전석초대)
출연: 테너 김남수, 이선경 외
문의: (010)2128-4771

교육 | 모집

2019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 모집

뿌리 깊고 샘이 깊은 교육의 전당
전국 최대 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예, 간호 포함 의료보건 특성화대학
원서접수: 12.29(토)~2019.1.3(목)
입학상담: 850-2580

2019 전기 2차 대가대 대학원생 모집

접수기간: 12.31(월)~2019.1.8(화)
문의: 850-3582(일반), 850-3508(교육)
660-5252(특수) / http://www.cu.ac.kr

대가대평생교육원 겨울학기 모집

학점은행(사회복지·보육·평생교육실습)
음악원(4·6·8주과정, 1:1레슨)
취미·교양 / 전문가 / 자격증과정
마감: 12.31(월) / 문의: 660-5555~7
http://conedu.cu.ac.kr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겨울진학캠프

일시: 1.8(화)~10(목)
대상: 진학희망 학생(현 초6~중1)
문의: (054)338-0530

프란치스카눔 발성법 5주년 워크샵

일시: 2019.1.5(토)~6(일) 미사있음
장소: 일광 예수마리아성심수도원
대상: 발성법 수강자 및 경험자
문의: (010)5453-3127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성가반주오르간, 난타·고전무용·장구,
오카리나, 왕초보여행영어, 제대꽃꽂이,
피아노, 발성법, 사범자격과정꽃꽂이,
가족·섬유공예, 가곡성가, 원어민영어,
미술심리2급자격과정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일시: 매주 금 10:00~11:00
장소: 1대리구청 강당(계산성당 내)
강사: 12월_최동석(안드레아) 신부

1월_홍성민 신부(부산가톨릭대 교수)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생활영어(화, 목), 바이올린(화)
성가반주(수, 토)
위치: 교대역 3번 출구 앞
신청: 476-6211

신나무골성지 봉사자 모집

문의: (054)974-3217

채용 | 안내

가톨릭신문사 직원 채용

분야: 경력 기자 및 경력 편집디자인
마감: 1.13(일) / 문의: (010)3527-9032
http://www.catholictimes.org

대구SOS어린이마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마을어머니 지원자 채용
자격: 미혼 여성
문의: 983-3154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석주, 정보배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백합식품 메주 판매

올해 메주(100%우리콩)판매 시작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에서 직접 생산
된장, 쌈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외
문의: 자인공장, 857-2037
대구판매소, 257-1771

2007 ISO 9001-2000 품질관리 인증업소, 그 명성과 자부심
늘 처음처럼... 최고급 식재료만을 고집합니다.

자금성
대표: 정경숙(스텔라), 황기철(사도요한)
예약 053)767-6700 수급 취급품 포도, 딸기, 자몽, 복숭아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셋증권건대우 9층
☎(053)257-8874~5
www.kisaneye.co.kr

www.theopen-daegu.co.kr 환절! 출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환절! 출추게 하라!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증정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보건복지부 지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T. 555-5520
보건복지부 지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죽전네거리 서민시장 맞은편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전강경진

딱! 좋은 병원
늘 시원한 위대항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노성균(아우구스티노)
산척동 대우아파트 앞 959-7175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연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상위 1%의 공, 학습무기를 준비하라!

UP 학습코칭

·공부방법 특강 ·분석독서코칭(비,문학)
·시험코칭 ·다중지능/적성검사

윤종선 (가필로)
☎(053)752-0966 범어동 KBS앞
NAVER 대구지주도학습 검색

LACOSTE
리코스테 대구 동성로점
단체복 문의 우대할인
가톨릭 신자 10% 할인
최현국(프란지스코)
대구 중구 동성로1길 29-36
☎ 053)427-0747 | 010-7292-7895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